



### 반산스님의 경전읽기

#### 화엄경③

〈화엄경〉은 입급 개의 장소에서 아홉 번의 법회를 가지는 데, 21년 동안 반야부 경전을 설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렇게 방대한 경전을 볼 수가 없다. 아합부에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다.

대승경전을 부처님 친설이 아니라는 해묵은 논쟁은 제쳐두고, 결론적으로 말하면 원시 불교 시대의 경전에서 화엄계통의 경전들을 먼저 모아 사상적 맥락을 같이 하는 작은 경을 모두 합하고 다시 품의 명칭을 붙이는 순서로 경전을 편집하였다고 전한다. 첫 번째 설법장소인 직멸도량에서는 6품이 설해진다.

그 중 성취품의 제4 계승을 살펴보자. 보현보살이 삼매에서 일어나 이렇게 계승했다. “끝없는 여러 세계를 비로자나

으로 세상을 가득 채우는 것이다.

두 번째 계승에서 제불의 방편력이 중생들의 욕구를 따르는 하지만 중생들이 오락가락으로 가는 것을 보고만 계시지 않는다. 공극에 가서는 욕구가 만드는 고통의 세상을 마감하고 깨달음의 길로 들어서도록 인도하시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사섭의 보살방편행 가운데 가장 어렵다는 동사섭(同事攝)이다. 그래서 중생들의 욕구로 건립된 세상에 불보살은 각각 그 한 국토에 원력으로 몸을 나누시는 것이다.

화장세계품 제5에도 보현보살의 계승은 이어진다. “광대한 구름 같은 대비가 모두에게 닿아 몸을 버리심이 한량없고 미진수세계에 평등하시니 오랜 세

## 중생을 번뇌없는 세계로 인도

### 착한 불자 ‘불국토’ 악한 중생 ‘혼탁세상’

### 고통 없애고 깨달음으로 이끄는게 동사섭

께서 모두 장엄하시니 세존의 경계 부사의힘이여 지혜와 신통력이 이와 같도다. 제불께서 갖가지 방편의 문으로 온갖 세상에 출현하시어 모두 중생들의 좋아하는 마음을 따르셨으니 이것이 부처님의 좋은 방편력이로다.”

세상은 모두 중생의 마음에 의해 이루어진다. 마음이란 중생들이 좋아하는 욕구이다. 이 욕구에 의해 업이 이루어지고 그 업은 다시 모든 세계를 건설한다. 그러므로 착한 불자가 이루는 세상은 불국토일 것이고, 악한 중생이 이루는 세상은 혼탁하고 투쟁으로 얼룩진 세상일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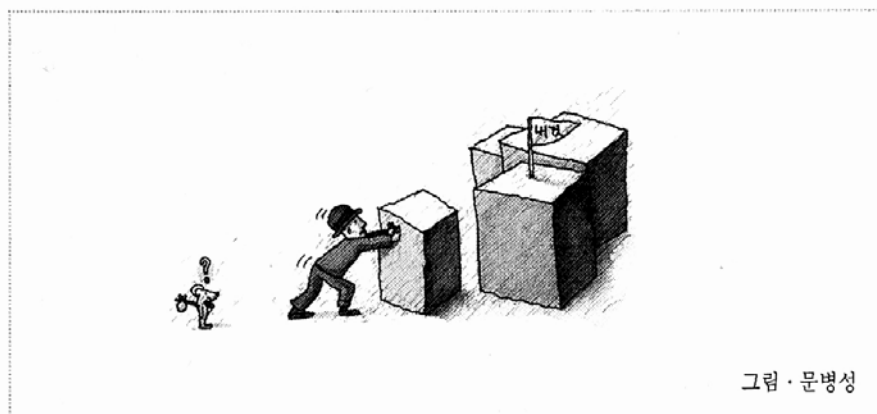
하지만 부처님의 본원력은 모든 중생을 자신과 같은 깨달음으로 이끄는 것이다. 십지 품에서는 이를 ‘중생을 성숙케 하는 서원’ 또는 ‘중생을 바른 깨달음으로 인도하려는 서원’이라 한다. 그래서 비로자나의 모든 장엄은 곧 원력

을 동안 수행한 힘으로 지금 이 사바세계에 어떤 번뇌도 없게 하시도다.”

다시 말해 제불의 대비하신 방편의 힘으로 사섭을 행하여, 구경에는 중생을 번뇌 없는 세계로 인도하신다는 말이다. 화엄에서 화장세계란 여러 부처님이 보살피는 바로 이 사바세계를 가리킨다.

여기에서 ‘버리신 몸이 한량없다(捨身無量)’고 하였으니 지옥중생을 제도하기 위하여 일부터 지옥에 나시기도 하고, 중생을 구제하기 위하여 부루나(富樓那)처럼 외도에 몸을 버리기도 하고, 목건련(目健連)처럼 법문을 펼치다가 들을 맞기도 하고, 또 어머니를 구제하기 위하여 지옥을 찾기도 하였던 것이다. 불보살님들은 자신이나 가족을 위해서 몸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중생을 위해서 몸을 버리는 것이다.

■ 불교신문사 불교학원 연구원



그림·문병성

## 갖되 사심없으면 ‘무소유’

### 불교와 과학 <24>

#### 소유

어제 요리를 하기 위하여 부엌에서 양파를 다듬었다. 우선 겉껍질을 벗기고 칼집을 하려는 데 양파 속의 맨 겉껍질이 물러서 다시 한 겹을 더 벗겨 내었다. 그런데 그 다음 겉도 물러서 다시 벗겨냈는데도 또 물러 떨어져 다시 한 겹을 더 벗겨냈다. 이렇게 자꾸 벗겨 내니 막상 먹을 양파가 없어지고 말았다. 양파는 양파 내용물이 겉껍질로 되어 있어서 어디까지 내용이고 어디까지 겉껍질인지 구분할 수 없다.

먼 옛날 신석기 말기부터인지 확실하지 않지만, 인간에게서 언어와 삶이 유리되면서 우리는 존재와 인식 그리고 행위를 나누어 생각하는 버릇이 들었다. 존재를 지칭하는 주어가 반드시 먼저 있어야만 인식과 행위를 기술하는 통사를 그 주어에 갖다 붙일 수 있다는 생각이다. 존재는 고정된 어떤 것이 있다는 생각, 그리고 그 고정된 존재가 있어야만 비로소 인식과 행위를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바로 세계를 분화시키는 사유의 출발이 된다. 그리고 이런 이분화된 사유는 대상과 나를 구분하여 나를 중심으로 대상을 보려는 자아 중심적인 언어행위의 시작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런 사유는 결국 양파를 겉껍질 벗기다 보면 아무 것도 먹을 수 없게 되는 원숭이의 알팍한 재주에 비유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자아와 대상의 구분은 인간에게서 소유의 영원한 욕심을 낳게 하는 사유의 원천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인간과 달리 동물들에게 소유의 의미는 욕망의 인식이나 그것을 얻으려는 행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인식과 행위가 같이 녹아 있는 존재 그 자체이다. 어려운 말이지만, 아메바의 포식작용의 예를 들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아메바는 먹이를 포식하기 위하여 자신의 몸 일부를 뱉어 먹이에 부착시킨 후, 몸체를 끌어 당겨 그 먹이를 감싸는 행위를 보인다. 그렇게 뱉어 내리는 자신의 몸 일부를 우리는 허족(虛足)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허족과 몸체는 따로 분리된 것이 아니라 하나의 몸 일부분이다. 이렇듯 아메바의 몸이 아메바의 존재라면 행위를 담당하는 허족도 아메바의 존재이다. 그래서 아메바에게서 존재와 행위는 구분이 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허족의 뱉침은 아메바에게 있어서 행위이듯이 동시에 그 행위는 먹이를 포식하

려는 인식작용이기도 하다. 그래서 아메바에게서 인식과 행위는 같은 것이다. 결국 아메바에게서 존재와 인식, 행위는 분리될 수 없는 하나의 생명 현상이다.

그러나 인간은 인간으로의 진화 과정에서 존재와 인식 그리고 행위의 일체가 깨어지고 분화되기 시작하였다. 특히 인간은 문명사회를 누리면서 인식과 행위는 완전히 갈라지게 되었다. 있는 대로 말하는 사람들은 적어지고, 아는 대로 행동하는 사람들은 더욱 줄어들었다. 문명은 인류에게 물질적인 풍요로움을 가져다 주었지만, 물질의 풍요로움은 끝없는 소유의 유산이었다. 그래서 나의 소유는 많을수록 좋은 것이고, 나의 소유는 필연적으로 너의 결핍을 동반하였다. 소유의 나는 살아 남을 수 있고 결핍의 너는 죽을 수밖에 없다는 강한 약육강식의 논리가 문명사회의 지배논리로 되었다.

인간 소유욕의 특징은 소유욕의 충족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소유욕을 버리지 못하고 더 많은 소유에 집착한다는 점이다. 존재와 인식 그리고 행위가 통합된 동물의 소유는 존재의 욕구가 충족되면 그것으로 소유의 욕구도 그치고 만다. 이 점이 인간이 다른 동물과 차이는 결정적인 특징이다. 동물은 존재의 소유가 해결되면 그것으로 소유의 행위도 그친다. 그러나 인간은 자신의 존재를 유지하기 위하여 영원히 소유를 지향한다. 존재를 유지하는 수준이 아니라 존재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유를 계속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보자. 먹이사슬의 정점에 있는 땅의 사자나 혹은 물의 상어도 자기의 배가 채워지면 먹이사슬도 그친다. 그러나 인간은 자신의 배가 불러도 소유를 위해서 소유를 계속하고 있다.

인간의 소유 욕망은 더 이상 개체의 존속과 종의 존속을 위한 인식적 도구도 아니라, 문명사회와 함께 주어진 가장 큰 인간의 존재 특징이 되어 버렸다. 이제는 소유욕이 오히려 인간 상실과 집단 절멸의 위기를 자초하고 있다. 오늘날 지구상의 환경위기, 인간소외, 자원고갈, 국제분쟁 등에서부터 주변에서 일어나는 화내고, 다투고, 시기하고, 뺨내고 남 업신여기는 등의 일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세간사의 분화된 존재는 모두 소유의 필적으로부터 생긴다는 것쯤은 어떤 아이들도 다 알고 있다.

석존의 무소유의 논리는 단순히 소유가 욕심을 불러오니 그 때문에 소유를 하지 말자는 소극적인 태도가 아니다. 무소유의 논리는 나의 존재가 인식과 행위와 함께 할 수 있는 가장 생명적이고, 가장 존속 가능한 삶의 태도라는 능동적인 길을 보여주고 있다.

### 대상과 나 가르는 이원론 소유근원 끝없는 욕망 다스려야 자원난 해결

■ 최충덕/성지대 교수(jdchoi@chiak.sangji.ac.kr)

## “오계 배우고 명상 수업이 재미 있어요”

### 지구촌 불교 / 영국 다르마 초등학교

아이들이 식사를 하기 전 부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리고, 반주에 맞춰 티베트 불교의 계승을 노래하듯 암송하는 영국의 한 초등학교가 화제다. 이 학교는 BBC에 의해 지난달 5일 보도된 잉글랜드 남쪽 브릭톤(Brighton) 지역의 다르마 학교(Dharma School)다.

영국에서 유일하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설립 이념으로 세워진 이 학교에서는 아이들이 무릎 꿇고 불상을 친견하고, 눈을 지긋이 감고 명상을 하는 모습을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다르마 학교는 1995년 잉글랜드 지역에 살고 있는 영국인 불자들의 모금으로 세워졌다. 당시 잉글랜드 불자들은, 집에서 같이 자녀들이 교육 현장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실천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모금을 시작했다.

이 학교의 교장인 케빈 포시(Kevin Fossey) 씨를 비롯해 교사들은 모두 불자이다. 그렇다고 새책 포교를 제1원칙으로 삼고 포교 지상주의



◊ 식사에 앞서 감사의 기도를 올리는 다르마 학교 학생들.

를 내세우는 사람들은 아니다. 포시 씨는 “부처님 가르침 중에서 일상의 도리로 삼을 수 있는

### 1995년 잉글랜드 불자 중심 설립 나눔의 미덕 등 삶의 도리 가르쳐

내용을 선별해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다”며 “지금 우리 학교에서 강조하는 것은 오계(五戒)나 연기법(緣起法) 등이다”고 말했다.

포시 씨에 따르면 오계나 연기법을 가르칠 때에도 아이들이 부처님의 뜻을 부담 없이 배우고 실천할 수 있도록 놀이와 같은 다양한 현장 프로그램을 병행하고 있다. 물론 다르마 학교의 법회 역시 일반 식습을 그대로 수용하면서도 아이들이 지루함을 느끼지 않도록 오락과 취미 활동 등을 포함시켰다.

이 곳에서 3년 간 교육받은 헨리(Henry) 군은 “부처님 오신 날에 수업 시간에 갖고 뒀던 솜씨를 잉글랜드 불교회관에 마련되는 공연무대에서 선보일 생각을 하니 무척 기쁘다”고 말했다.

BBC 보도에 따르면 다르마 학교의 교육 철학과 프로그램은, 불교를 믿지 않는 영국인들도 주저없이 자녀를 맡기게 하고 있다. 현재 이 학교에는 비불자 가정에서 태어나 자라난 아이들이 전체 학생의 16%에 이른다.

리사 조프(Lisa Joffe) 씨는 “불교를 믿지 않지만, 어린 딸이 배워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을 이 학교에서 가르치고 있다”며 “영국의 전통과는 다른 곳에 딸을 보내기로 결정하는 순간에도 망설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조프 씨의 딸은 지난해부터 다르마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자신의 딸이 학교에서 나눔의 미덕이나 상대방을 인정하는 태도를 배우고 있다고 조프 씨는 확신하고 있다. 조프 씨와 같이 이 곳에 자녀를 보내는 영국인 중에는 일반 초등학교의 권위적이고 틀에 박힌 교육 환경에 염증을 느낀 사람들이 많다.

다르마 학교를 집중 보도한 BBC는 “기독교 나라인 영국에서 불교 초등학교를 운영한다는 것이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며 “그러나 아이들이 일생 동안 그들의 삶을 좌우할 가치관을 정립하는 시기인 만큼, 다르마 학교가 있는 한 영국 불교는 계속 발전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종욱 기자(gobaou@buddhapia.com)

## 靈山會上曲 (영산회상곡)

YOUNG SAN HOI SANG KOK

가격 : 4,000원(3월 24일부터)

불기 2545년 (2001년) 3월 24일  
조계종 沙門 尹日禪 作

주문처 전화 : 031-952-7031 휴대전화 : 011-9941-5818  
주소 :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마정리 117번지 (임진강부근)

## “일심으로 불사에 동참합니다”

지난 30년간 오직 석재조각을 통해 부처님 말씀을 전하고 전통문화를 계승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동국대 불교문화예술대학원에서 문화재를 전공하며 체계적인 이론 수업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불교조각을 통해 불법을 널리 알리는 것을 인연법으로 삼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석재조각의 대가  
**동국석재조각예술**  
전화: 031) 531-8736 팩스: 031) 531-5549 휴대전화: 011-284-5101